외딴 섬

예술문화영상학과 202069107 김태희
예술문화영상학과 202069122 임수민

S#1. 학원 로비 / 오후
민낯에 편한 옷을 입고 머리를 묶은 채 영어학원 문 앞에 선 소희.

INS 학원 문 앞에 붙어있는 학원 홍보지 (예비고1 스피치 대회 준비반)

학원 문을 조금 열고 주위를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온다. 가방을 열어 프린트물 파일 하나를 꺼내 손을 든 소희, 긴장한 얼굴이다. 원장실 앞에 멈춰 서 노크를 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간다.

S#2. 원장실 / 오후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원장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원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희. 원장실 의자에 앉아 있는 원장 선생님.

소희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소희 안녕. 어제 써오라 한 영어스피치대회 대본은 써왔니? 스피치 대회는 처음이랬지?
소희 (대본 프린트물을 건네며) 네 처음이에요.

책상 위 안경을 끼고 프린트물을 살피는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프린트물에 눈을 고정한 채로) 그래 먼저 교실에 들어가 있어.
소희 네

소희가 문을 열고 나간다.

S#3. 복도 / 오후
원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 교실 앞에 도착한 소희. 교실 안을 본다. 앉아 있는 윤경과 친구1, 친구2.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희.

S#4. 교실 / 오후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희. 교실엔 자기 자리에 앉아 대화하고 있는 세 명의 학생. (학생1, 학생2, 윤경). 세 명 모두 진한 화장을 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을 유심히 보는 소희. 조용히 맨 뒤 빈자리에 앉는다. 곧이어 손에 프린트물을 한가득 들고 교실에 들어오는 원장 선생님. 학생들에게 손에 들었던 프린트물을 준다.

원장 선생님 자 이거(프린트물) 옆으로 넘겨. 오늘부터 스피치 준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윤경이가 쓴 대본은 학원 앱에 올려둔 거 미리 읽어왔지? 지금 나눠주는 거는 소희 대본, 빨리 읽어봐.

원장 선생님 학생들에게 프린트물을 다 나눠준 후 교탁에 앉는다.

원장 선생님	윤경이 앞으로 나와봐.
윤경	네
원장 선생님	윤경이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쓴 것 같네. 다들 어떻게 봤어?
친구1	저는 첫 문단 몰입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친구2	네 저도 도입부 좋았어요. 그리고 주제 선정도 잘한 것 같아요. A.1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밝힌 것이 흥미로웠어요.
원장 선생님	대본은 조금만 수정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스피치 연습도 중요한 거 알지?
윤경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네!

웃는 윤경.

원장 선생님	자 그럼 윤경이 피드백은 이 정도로 하고, 소희 앞으로 나와봐.
소희	네

그제서야 소희에게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

원장 선생님	음... 소희는 아직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영작이 어색한 것 같네. 다들 소희 대본 다 읽어 봤니?
친구2	아 저 근데... 주제를 물범(서식지 환경 파괴 문제)으로 했는데.. 흥미가 떨어지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굳이 물범 문제를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소희	(강하고 단호한 어투로) 제가 물범을 좋아해서요.
친구1	주제도 물범에... 단어도 쉬운 단어로만 구성돼서 이게 고1 수준인지... (말을 끝내지 못한다)
소희	(강하고 단호한 어투로) 쉬운 단어로 구성해서 더 쉽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장 선생님	(조용한 학생들을 보며) 소희에게 더 해줄 말은 없어?
친구1	(중얼거리며) 뭔 말을 하겠나...

이어지는 정적. 소희를 보며 무표정한 친구들.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에 당황하는 소희.

원장 선생님	그래 그럼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자. 토요일에는 대회 나가는 윤경이랑 소희만 따로 쌤이 봐줄게. 윤경이는 스피치 연습해오고 소희는 대본 고쳐와.
윤경	네
소희	네

S#5. 소희의 집 / 밤

소희가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방에 들어온 소희. 물범 모양 쿠션, 물범 인형, 물고기 필통과 등등 특이한 소품으로 가득한 소희의 방. 침대에 앉아 엄마에게 전화 거는 소희.

소희	(물범 인형을 한 손으로 안고 폰을 귀에 붙이고) 엄마 나 방금 집에 들어 왔어.
소희 엄마	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소희	(울상을 짓고 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소희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소희	오늘 스피치 대본 피드백 받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싸했어ㅠ
소희 엄마	아휴. 애들이랑 잘 좀 지내 봐. 그리고 언제까지 물범들 끼고 살래? 딴 애들 봐라. 그거 좋아하는 애 있나.
소희	물범 좋아하는 거 가지고 왜 자꾸 뭐라고 해... 나도 애들이랑 잘 지내고 싶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소희 엄마	좀 더 노력해봐. 말투도 좀 부드럽게 하고 너가 먼저 다가가고 그래야지.
소희	으응. (폰을 내려 놓고 안고 있는 물범인형에 머리를 파묻으며)

S#6. 교실 / 다음날 오후

교실에 들어오는 소희. 수업 시작 전 교실에 모여 앉아 큰 소리로 대화하는 윤경과 친구들. 큰 결심을 한 듯 주먹을 쥐는 소희.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간다.

소희	안녕. 혹시 오늘 숙제 있었어?
친구1	(고개를 돌리며) 아니. 없었을걸.
소희	아 그래 (옆에 있는 친구2와 눈이 마주친다)
친구2	(소희와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굳는다)

소희는 친구2의 표정을 보고 눈을 돌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혼자 영어 종이 사전과 물고기 모양 필통을 꺼내 보는 소희.

친구1	(조용하게) 헐 야 나 저거(종이사전) 쓰는 사람 첨 봄;; 재 좀 이상해. 스피치 준비는 왜 함?
친구2	야 필통도 졸라 특이하다.(ㅋ) 그러게 갑자기 왜 준비한대? 학원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소희에게 희미하게 들리는 친구들의 뒷말. 고개를 숙이는 소희. 교실에서 나가려 교실 문 쪽을 바라본다.

윤경	(소희쪽을 보며) 내가 가서 함 물어볼까?
친구1	(가는 윤경을 말리며) 야 굳이? 쟤랑 왜?
윤경	뭐 어때.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소희를 힐끗 보더니 소희에게 말을 거는 윤경. 윤경이 소희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친구1과 친구2는 복도로 나간다.

윤경 (친구들 말을 듣고 소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소희! 스피치 대회 나가는 거지?
소희 (웃으며) 어!
윤경 아~ 갑자기 왜?
소희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윤경 (소희의 모습을 쓱 훑더니) 응~ 어제 안 좋은 소리 들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나아질 거야.
소희 응. 고마워.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윤경 (의아해하며) 어.. 열심히 해~
소희 고마워!
윤경 맞다 나 오늘 수업 끝나고 자습실 갈 건데 같이 갈래?
소희 (웃으며 조금 신난 말투로) 응? 응! 좋아.

S#7. 자습실 / 오후
수업이 끝나자 자습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희와 윤경.

윤경 소희야. 자습실 이쪽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희 (고개를 끄덕인다)

자습실 테이블에 앉아 대본 수정을 시작한다. 대본을 보다 말고 소희에게 말을 거는 윤경.

윤경 아 맞다. 소희 너 얼마 전까지 울릉도에서 살았다 했지? (순수한 어투로) 그럼 회 많이 먹었겠다?
소희 응 먹긴 먹었지. 음... (부드러운 어투로) 근데 섬에 산다고 회 다 많이 먹는 건 아니지 않아?
윤경 (당황해하며) 아... 그런가?

대본 수정을 계속하는 소희. 대본 잠깐 읽다 말고 폰만 계속 보는 윤경.

INS 스마트폰 하는 윤경의 손과 폰케이스

윤경 아 하기 싫어. 걍 내일 할래. (폰을 보다 고개를 들며) 넌 계속할 거야?
소희 응 난 좀 더 하려구.
윤경 내가 좀 도와줘?
소희 아 땡큐! 그럼 이 문장 영어로 고친 것 좀 봐줄래?
윤경 어 이거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하며) 주어가 사람이니까 현재분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써야 될 듯.

소희 (해맑게) 아 그래? 근데 분사가 뭐야?

윤경 아 그거 기본 문법인데... 음 (책을 가리키며) 이 책 몇 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참고해.

소희 고마워! (말투를 조심스럽게) 근데 기본 문법의 기준이 뭐야?

윤경 어...? (소희의 반문에 기분이 상한다)

표정이 안 좋아지는 윤경과 윤경의 눈치를 잠깐 보는 소희. 눈치를 보다가 다시 대본 작성을 시작한다. 소희 조심스레 윤경에게 말을 건다.

소희 (손에서 펜을 놓으며) 끝! (윤경의 폰케이스에 끼워져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윤경아 근데 이거는 어디서 찍은 거야?

윤경 인생네컷에서. 아 맞다 너 인생네컷 찍어본 적 없지? 울릉도에는 그런 거 없잖아.

소희 응 안 찍어봤어.

윤경 그럼 오늘 찍으러 가볼래?

소희 응응.

S#8. 길/ 밤

윤경과 인사하는 소희.

윤경 빠이.

소희 그래. 안녕.

S#9. 학원 자습실 / 오전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를 보고 있는 원장 선생님. 학원 자습실로 들어오는 소희.

소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어 소희. 안녕. 일찍 왔네. 영어 대본 다시 써왔니? 지금 한번 볼까?

소희 (가방에서 대본을 꺼내 드리며) 네 선생님. 여기요.

소희의 대본을 유심히 보는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대본) 어법은 훨씬 나아졌네. 그런데 대본에 네 의견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희 네. (생각하다가) 좀 더 고민해볼게요.

먼저 자습실 자리에 앉아 자기 대본을 다시 읽어 보는 소희. 윤경이 자습실로 들어온다.

윤경 (조심스레) 쌤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어 윤경이 좀 늦었네.

원장 선생님과 인사한 뒤 자리에 가 앉는 윤경. 윤경에게 인사하는 소희.

소희 윤경아 안녕.
윤경 ...(소희의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소희 (인사를 다시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다 만다)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하는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소희는 대본 잘 고쳐왔던데 윤경이는 스피치 연습 잘 해왔니?
윤경 아... 네...(작아지는 목소리)
원장 선생님 그럼 한 번 스피치 해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어색하고 부족한 윤경의 스피치.

윤경 “hello this is 김윤경. i am here to talk about... talk about the a.i 아...
원장 선생님 윤경아 연습 많이 안 했지? 연습 안 한 게 다 티 나는데?
윤경 (고개를 숙이며) 아... 죄송해요...
원장 선생님 영어 원래 잘한다고 준비 설렁설렁하는 거야? 너 지금 수준으론 스피치 대회도 못 나가. 소희는 영어 못해도 열심히 해와서 많이 좋아졌는데... 좀 열심히 하자. 모레까지 다시 준비해와, 알겠지?

윤경 고개를 숙이고 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소희와 눈이 마주친다. 소희와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고개를 숙이는 윤경.

윤경 (입술을 깨물며)...네

교실을 나가는 원장 선생님. 윤경에게 몸을 기울이는 소희.

소희 (조심스레 검지로 윤경 어깨를 톡톡 치며) 괜찮아?
윤경 (뒤돌면서 소희를 쏘아보며) 뭐가?
소희 아까...
윤경 (어이없다는 듯) 하...지금 날 걱정해?

윤경의 말에 갸웃하는 소희.

윤경 너나 잘해. 내 걱정하지 말고, 좀 챙겨줬더니 친한 척은.

벙찐 표정의 소희.

윤경 야 불쌍해서 말 좀 걸어줬더니 존나 나댄다 니. 뭐 칭찬 좀 받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소리치며) 니가 뭔데 날 걱정해/?

윤경 교실을 나가버린다. 소희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모습이다.
소희 얼굴 클로즈업.

S#10. (소희의 회상) 인생 네컷 앞 길거리 / 오후
전에 약속했던 대로 S#7 이후 바로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간 소희와 윤경. 번화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인생네컷 가게로 들어간다.

S#11. (소희의 회상) 인생 네컷 내부 / 오후
인생 네컷 가게로 들어온 소희와 윤경. 거울 앞에 서서 외모를 꾸미는 윤경과 바라보는 소희.

윤경 (거울을 보며 고대기를 하며) 너도 고대기 좀 해
소희 아니 나는 괜찮아.
윤경 왜 지금 머리 좀 부스스한데 하면 훨씬 나아질 걸.
소희 그래도 좀.
윤경 그럼 쿠션이라도 발라. 틴트도 좀 바르고. 얼굴 너무 퀭하다.
소희 나는 화장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윤경 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러고 찍겠다고? 아니 그럼 소희야 여긴 왜 왔어...?
소희 ...
윤경 고대기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누가 너랑 사진 찍겠어? (화장) 좀 해야지
소희 (윤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왜 해야 하는데?
윤경 아니 애들 다 꾸미는데 넌? (이상하다는 듯이)
소희 음 어 (말을 얼버무린다)
윤경 너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하.. 됐다. 근데 너 아마 지금처럼 다니면 계속 친구 없을걸?

S#12. 소희 방 / 밤 -> 아침
책상에 앉아 고민하는 소희. 고민을 멈추고 영어 사전, 종이, 연필을 꺼내 다시 대본을 써보려는 소희. 적다가 다시 종이를 꾸기고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 잡는다. 다시 연필을 잡고 새 종이에 대본을 써 내려간다. 밤새 책상에 앉아 대본을 쓴 소희.

소희 엄마 (방문 밖에서) 이소희 일어났어? 아침 먹고 빨리 학원 가.
소희 아 안 먹을래~!

다 쓴 대본을 가방에 넣고 나간다.

S#13. 교실(p실) / 오전

원장선생님	소희야 (마지막) 스피치 연습해보자. 앞으로 나와봐.
소희	네. 쌤 저 근데 스피치 주제 바꿨어요.
원장선생님	갑자기? 이제 대회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소희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요.
원장선생님	(소희의 얼굴을 바라보다) ...그래 일단 해봐.

소희 스피치를 시작한다. 소희의 스피치를 듣고 눈이 커지며 내용에 집중하는 친구들. 소희가 스피치를 마무리한다. 소희 얼굴 클로즈업 줌인.

스피치 내용:
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표현이 서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노력해도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진심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영어도 서툴고 취향도 독특하고 화장도 안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저는 부족하고 이상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고 어떤 이에게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저의 이런 모습이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바꾸기보다는 성장하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꿔가고 싶습니다. 저도 상처받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선을 조금씩 찾아가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I am a person who is a bit clumsy and not good enough. Even if I try, there are times when I unintentionally hurt others feelings. But I also really want to get along with my friends. I know how I look now. I'm not good at English, I have a unique taste, and I don't wear makeup. To others, I may look short, weird, and sloppy. To others, it may seem pitiful. But to be honest, I don't hate the way I look now. So, rather than changing right now to develop, I want to change slowly and naturally as I grow. Little by little, I want to find a line where I can get along well without hurting anyone including myself. Thank you for listening.

화면이 암전되고 떠오르는 타이틀 [외딴 섬].